

요양병원 간호사의 내·외적 통제신념과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피로 관계에서 임종간호 수행의 융복합적 영향

임희영¹, 윤미진², 권영채^{2*}

¹부산안심요양병원 간호부장

²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Effect of Locus of Internal & External Control, Stress and Fatigus on the Geriaic Hospital Nurses' Terminal Care Performance

Hee-Young In¹, Mi-Jin Yun², Young-Chae Kwon^{2*}

¹Nursing Director of Pusan Ansim Hospital

²Prof.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내·외적 통제신념과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피로관계에서 임종간호 수행 수준을 알아보고 임종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요양병원 간호사 42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했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는 SPSS Win 22.0와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 경로분석은 Amos 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에는 임종간호 스트레스, 피로, 내적통제신념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내적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한 임종간호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요양병원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피로를 감소시킬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과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질적인 간호수행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업무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내·외적 통제신념, 스트레스, 피로, 임종간호수행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at examines the level of terminal care nursing care and the effects on terminal nursing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beliefs of nurses in the nursing geriaic hospital.. The subjects consisted of 442 nurse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that used SPSS WIN 22.0, and AMOS 5.0 statistical program was hypothetical model and path analysis of research hypothesis. As a result, terminal care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was statinificant to the terminal care stress, fatigue and locus of internal & external control. and the higher the internal control belief, the less stress of the terminal care and the higher the terminal care performance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rs a more terminal care performance, It is considered that nursing hospital nurses who develop strategic programs and terminal care nursing will need to provide quality nursing education and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Key Words : Locus of internal & external control, Stress, Fatigue, Terminal care performance

*Corresponding Author : Young Chae Kwon(nahante55@hanmail.net)

Received October 14,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October 26,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환경의 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2016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5%이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요양병원의 수가 2009년 777개였던 것이 2018년에는 1,535개로 많이 증가[2]하여 현재 그 규모와 수준이 다양해지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뇌졸중, 암 등 만성 질환자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통합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3].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성장은 평균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서 노인적 질환 및 만성질환자와 말기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부양 의무와 신체적, 정신적 보호의 부담등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됨과 더불어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다[4]. 노인요양병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치료되지 않고 호전이 안된 채로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5]. 따라서 노인환자의 임종에 대한 돌봄은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옮겨 오고 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노인환자들의 노인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직면할 기회가 많아졌다[6]. 이에 요양병원 간호사는 노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환경에 근무하면서 임종환자에 대한 욕창간호등의 직접간호제공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업무, 일상수행능력까지 돌보는 실정이다[7]. 노인환자중 말기암 환자의 통증 및 증상관리와 영적인 간호 즉, 임종간호수행까지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8].

요양병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사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 적응해 나가는데 중압감을 느끼고 특히 임종환자를 돌보아 하는 부담감은 육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소모가 커지며 간호사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와 및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9,10].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려면 요양병원 간호사는 죽음에 대한 내·외적 통제신념을 확실히 정립함으로 임종환자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임종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신념을 Rotter[11]는 자신의 행위를 이루는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통제신념을 자신의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높은 내적 통제 신념이 높은 사람과 자신의 외부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는 외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으로 나누었다. 통제 신념은 자신이 지각할수록 사람의 태도 및 행자기향상 및 동기화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한다고 인지하는 내적통제신념이 높은 자는 스트레스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며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신중하였으며, 곤란한 상황에서도 대처하는 능력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12].

통제신념에 대한 연구는 Rotter가 내·외적 통제척도를 개발한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Kim[13]의 연구에서 목회자의 부인은 내·외적통제신념에 따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내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책임자이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생각하므로 외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보다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외적통제신념 보다 내적통제신념이 강한 사람이 학업성취도 변인의 인과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 내적통제신념과 학업성취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보다 자율적이며 생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진취적, 목표지향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요양병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행되고 있는 임종간호 수행과의 관련성을 보인 연구로는 찾아 보기가 어려웠으며, 호스피스간호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15], 죽음인식에 대한 연구[16,17]가 대부분이며, 일부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연구가 있어[18] 추후연구에서 이를 우선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임종환자를 자주 접촉하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 수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내·외적 통제신념과 임종간호 수행 요인에 미치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내·외적 통제신념과 임종간호에 스트레스와 및 피로관계에

서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을 향상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내·외적 통제신념,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피로관계에서 임종간호 수행과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며 요양병원의 임종간호 수행능력의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임종간호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내외적 통제신념, 임종간호스트레스 및 피로, 임종간호수행 정도와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대상자의 내외적 통제신념, 임종간호스트레스 및 피로, 임종간호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변수간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연구 가설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내·외적 통제신념, 스트레스 및 피로관계에서 임종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근접모집단인 B시, K시, Y시에 위치한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요양병원의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연구참여 동의한 대상자는 서명 후 자가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는 구조방정식 모형표본의 크기에 따라 본 연구의 자유모수가 44개로 필요한 최소 샘플수는 400개이며 이중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되지 못한 50부와 불성실한 응답 28부를 제외한 422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2017년 3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I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NJE IRB/2016-10-058-004)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설

문응답에는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내·외적 통제신념(Locus of control)

내·외적 통제신념척도는 Glasser[19]의 7영역 항목의 축소형 통제신념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를 변안하여 만든 한국판 통제신념척도[20] 중 내적 통제신념 3개 항목과 외적통제신념 4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통제신념의 4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신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1]의 연구에서 통제신념의 Cronbach's α 계수가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2.3.2 임종간호 스트레스(Terminal Care Stress)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Lee[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5점 평정척도이며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임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영역 8문항, 임종환자에 대한 시간 할애의 어려움 영역 7문항,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감 영역 7문항, 업무량 과중 영역 5문항, 임종환자와의 인간적 갈등 영역 6문항, 전문지식과 기술부족영역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Park[23]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계수가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영역별 신뢰도에서는 임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89, 임종환자에 대한 시간할애의 어려움 .89, 임종환자간호에 대한 부담감 .81, 업무량과중 .86, 임종환자와의 인간적 갈등 .80,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90로 나타났다.

2.3.3 피로(Fatigue)

피로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유용성 평가에서 입증된 Schwartz[24]의 FAI(Fatigue Assessmen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느꼈던 피로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FSS (fatigue severity scale)내용은 전반적 피로도 영역 10항목, 일상생활기능 장애 영역 5항목, 상황적 피로영역 4항목의 세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7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4이었으며 각각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피로도 .93, 일상생활기능장애 .81, 상황적 피로 .89로 나타났다.

2.3.4 임종간호 수행(Terminal Care Performance)

임종간호 수행은 Park[25]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도구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심리적, 영적 영역의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8문항, 8문항, 6문항으로 4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임종간호 수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Park[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계수가 .92로 나타났고 각각의 하위영역별 신뢰도에서는 신체적영역 .88, 심리적영역 .86, 영적영역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과 와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내·외적 통제신념,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피로에 따른 임종간호 수행의 차이는 독립표본검정(Independent t-test), 분산분석(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 를 이용하였다.

셋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모형의 구조 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으로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평가는 절대부합지소 X²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422명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98.6%이었고, 연령은 50-59세가 38.4% 이었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79.9%, 종교는 '무교'가 33.6% 이며, 최종학력은 ,전문학사 졸업,이 67.8%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22)

	Description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Male	6	1.4
	Female	416	98.6
Age(year)	20-29	30	7.1
	30-39	55	13.0
	40-49	146	34.6
	50-59	162	38.4
	60<	29	6.9
Marital status	Married	337	79.9
	Single & others	85	20.1
Religion	Christian	93	22.0
	Catholic	46	10.9
	Buddhism	135	32.1
	Others	148	35.0
Degree	College	286	67.8
	University Overs	122 14	28.9 3.3

4.2 연구대상자의 직무관련특성에 따른 차이

직무관련 특성에 따라 임종간호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임종간호수행 분석결과 요양병원 근무경력, 간호직 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요양병원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1년 미만(M=56.12)에 비해 5-7년 미만(M=60.23), 7-10년 미만(M=60.88), 10년 이상(M=61.43)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종간호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직 생활 만족도에 따라서는 약간 불만족(M=55.47)에 비해 만족(M=61.45)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종간호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 of the Terminal Care Performance by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for Subjects (n=422)

	Description	n	M±SD	t/F-value	p-value	Post Hoc
Experience	1 >	59	56.12±13.31	2.519*	.029	A<D,E,F
	2-3	112	58.56±09.10			
	4-5	100	57.01±09.96			
	6-7	75	60.23±09.92			
	8-10	48	60.88±08.72			
	10<	28	61.43±09.37			
Department Ward		298	58.76±10.12	.499	.618	-

	Intensive care unit	124	58.22±10.43			
Position	Registered nurse	341	58.45±10.52			
	Charge nurse	29	57.59±08.60	.766	.466	-
	Head nurse over	52	60.13±08.81			
	Day Shift	131	58.37±09.58			
Shiftwork	Shift	291	58.71±10.48	-.318	.751	-
	Never	39	60.18±11.71			
Physical burden	Bearable	273	58.57±10.20			
	Slightly hard	100	57.96±9.13	.488	.691	-
	Feel hard	10	59.80±14.39			
	Satisfied	73	61.45±10.77			
Satisfaction for nursing	Generally satisfied	269	58.62±09.76			
	Slightly dissatisfied	73	55.47±10.39	4.419**	.004	C/A
	Dissatisfied	7	60.86±11.74			
	Training for terminal care	Yes	215	60.52±9.72		
	No	207	56.61±10.33	3.998***	.000	-
Whole		422	58.60±10.20			

4.3 대상자의 변수간 상관관계 검증 및 판별타당도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 및 이론 모형에 대한 전체 적합도와 경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먼저 내적통제신념은 외적통제신념($r=.109, p<.05$), 임종간호수행($r=.16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종간호스트레스($r=-.097, p<.05$)와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r=-.142, p>.05$)는 내적통제신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외적통제신념은 피로($r=-.0320, p<.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종간호수행($r=.102, p<.05$)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간호스트레스($r=-.067, p>.05$)는 외적통제신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간호스트레스는 피로($r=.321,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임종간호수행($r=-.144,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로는 임종간호수행($r=-.27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도는 서로 독립된 잠재변수 간의 차이가 9이상이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상관계수가 9이상을 넘어 AVE(분산추출

Table 3. Verification on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and Normological Validity (n=422)

Description	Internal Control	External Control	Terminal Care Stress	Fatigue	Terminal Care Performance
Internal control	-				
External control	.109*	-			
Terminal care stress	-.097*	-.054	.547		
Fatigue	-.043	-.320**	.321**	.664	
Terminal care performance	.163**	.102*	-.144**	-.270**	.525

지수)가 대각선 하단의 결정계수보다 크게 나타나서 판별타당도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4.4 대상자의 변수간 모형의 경로분석

대상자의 내적통제신념, 외적통제신념, 임종간호 스트레스, 피로, 임종간호수행간 모형의 경로분석결과는 Table 4와 Figure1과 같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내성변수로 하는 가설 검증결과는 내적통제신념, 피로의 경로계수는 -0.16, C.R값은 -1.86($p<.05$)과 0.34, C.R값은 6.31($p<.01$)로 나타나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ath Analysis of among variables of Hypothesis Model

Hypothesi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Estimate	S.E	C.R.	p-value
H1	Internal control	Terminal care stress	-.17	.09	-1.88	.031*
H2	External control	Terminal care stress	.10	.08	1.26	.103
H3	Internal control	Fatigue	-.04	.10	-0.36	.359
H4	External control	Fatigue	-.53	.08	-6.53	.001***
H5	Internal control	Terminal care performance	.32	.10	3.22	.001***
H6	External control	Terminal care performance	.08	.076	1.12	.132
H7	Terminal care Stress	Terminal care performance	-.13	.06	-2.34	.009**
H8	Fatigue	Terminal care stress	.35	.05	6.31	.001***
H9	Fatigue	Terminal care performance	-.12	.06	-2.22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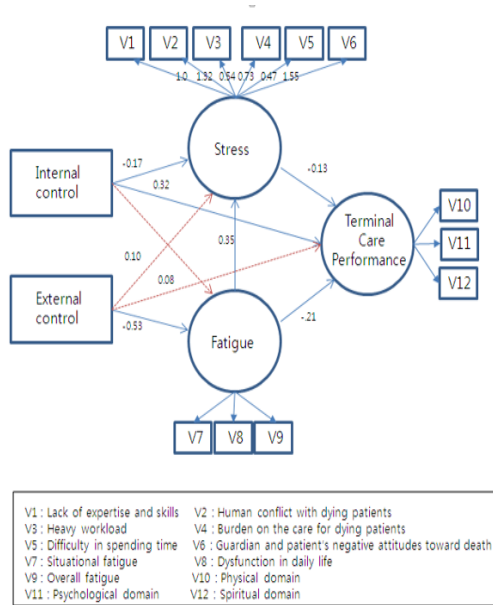


Fig. 1. path diagram of the study

피로를 내성변수로 하는 가설 검증결과는 외적통제신념의 경로계수는 -0.53, C.R값이 -6.53($p < .01$)로, 피로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간호 수행을 내성변수로 하는 가설 검증결과는 내적통제신념의 경로계수는 0.32, C.R값은 3.22($p < .001$)으로 나타나 임종간호 수행에 유의한 양의관계를 보였다.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경로계수는 -0.13, C.R값이 -2.33($p < .01$)으로 나타나, 임종간호 수행에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피로의 경로계수는 -0.12, C.R값이 -2.22($p < .05$)로 임종간호 수행에 유의한 음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내·외적 통제신념과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피로관계에서 임종간호 수행 수준을 알아보고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임종간호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요양병원에서 임종간호 수행을 잘 하는 간호사가 간호의 전문직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을수록 임종간호수행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23,2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직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81.0%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이 50.9%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약 50%는 임종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위한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필수교육으로 채택하여 요양병원 임종간호수행의 질을 높이는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내적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임종간호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외적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 수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 부인의 내적통제신념이 높은 목회자 부인이 외적통제신념이 높은것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13]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스트레스에 처할 때 자신이 통제한다고 인지하는 내적통제자가 스트레스는 외적요인인 운명이나 운 등에 의한 것 이라고 보는 외적통제자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11]이다.

내적통제신념이 높은 간호사가 임종간호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 보다 진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으로 자율적이며 생에 대해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또한 내적통제신념이 높은 자가 외적통제신념이 높은 자보다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14] 내적통제신념이 높은 사람이 임종간호 수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임종간호 수행에 참여하는 간호사를 배치할 때 현실적으로 완전 고려할 수는 없지만 내적통제신념을 개발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피로와 임종간호 수행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피로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피로가 낮을수록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이 높다는 연구[21]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69% 이상이 교대근무를 하고 업무의 육체적 26.3%가 업무의 육체적인 부분에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근무시 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육체적인 업무 과중뿐만 아니라 임종간호환자의 증상 완화 간호에 치중함으로 피로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임종간호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해야 하는 제도적인 방안과 요양병

원 간호사의 전반적 피로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간접효과로 간호사의 업무 피로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이 낮게 나타났고 간호사들의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이 낮게 나타난[14,23]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임종환자뿐 아니라 가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의 영향이 임종환자의 질적인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임종간호수행을 위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종환자의 복합적인 간호요구뿐만 아니라 임종환자의 죽음을 평안히 맞게 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간호를 제공하는 당위성을 가지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요인을 찾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요양병원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간호사의 스트레스 및 피로를 줄이기 위한 3교대 근무형태의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급성기와 다른 간호업무 외 환자 목록, 수발, 등의 소진 높은 간호행위의 해소를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임금 보장 등의 간호사 복지향상의 제도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B시, K시, Y시에 위치한 요양병원 간호사 422명을 대상으로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간호사가 임종간호 수행을 잘 할 수 있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I대학교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NJE IRB/2016-10-058-004)을 받아 26개 요양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422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은 있어 내적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간호사가 임종간호 수행을 잘 할수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표준화된 도구이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임종환자의 중증도등을 포함한 임종간

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 경남에 위치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구조모형을 구축하였으므로 특정 지역의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활용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tatics Korea. (2017). statistics on the aged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7 Sep 29 [updated 2017 Sep 29; cited 2018 May 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 rd?bmode=read&aSeq=330349
- [2] Statistics Korea. (2018).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vailable at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 T_MIRE01&conn_path=I2 [accessed on 1 October, 2018].
- [3] S. H. Kim & Y. M. Song. (2013).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for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ath Anxie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190-219.
- [4] S. K. Park (2017), Estimating the Need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1), 495-514. DOI: 1788-1913. 2015.01.20.
- [5] K. J. Lee & Y. S. Park. (2015). Nurses' spirituality and attitude toward terminal care in geriatric hospital.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3(12), 347-357. DOI : 10.14400/JDC.2015.13.12.347 <http://dx.doi.org/10.21742/AJMAHS.2019.04.19>
- [6] J. T. Lee. (2018). *Activation of senior care service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a study on the role of nursing homes and long- term care hospitals*.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Report. Seoul City: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Sep 7. Report No. KIRI_20180906_124058. 21(2)
- [7] R. Deady & J. McCarthy. (2010). A study of the situation, features, and coping mechanisms experienced by Irish psychiatric nurses experiencing moral distress. *P e r s p e c t i v e P s y c h i a t r i c C a r e*, 46, 209-220. DOI : 10.1111/j.1744-6163.2010.00260.x
- [8] G. Y. Lim & S. Y. Choi. (2019). The influence of ethical dilemma and ene-of-life care stress on burnout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6), 355-363.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6.355>.
- [9] W. S. Kim, H. W. Cho & S. H. Kwon (2016), The influence of terminal care performance, death anxiety and self-esteem on terminal care stress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Journal of hospital & palliative care*, 19(2), 154-162.

DOI: 10.14475/kjhpc.2016.19.2.154.

[10] Y. K. Kim & S. H. Kwon. (2019).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 nurs*, 19(3), 203-213. DOI: <https://doi/10.17079/jkgn.2017.19.3.203>

[11] Rosser & King. (2003). Transition experiences of qualified nurses moving into hospice nursing, *Journal of Adqanced Nursing*, 23(2), 206-215.

[12] Brissett, Nowicki, Brisset, M. & Nowicki, S. J. (1973).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nd reation to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1), 35-44.

[13] J. K. Kim. (2009). *Th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nd irrational beliefs of pastor's wife upon their stress*, master degree, Keimyung University, Seoul.

[14] J. L. Lee. (2016). *The effect of examines' control beief, self-esteem, and self-love on academic achievement*, master degree, Korea University, Seoul.

[15] S. E. Choi & E. S. Kang. (2009). Effects of holistic hopic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self 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for inpatients of hospice palliative care unit,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2(4), 209-219.

[16] Munley A. (1985). Sources of hospice staff stress and how to cope with it. *Nurs Clin North Am* 20, 343-55.

[17] Y. W. Woo, K. H. Kim & K. S. Kim. (2013). Death anxiety and terminal care stress among nurses and the relationship to terminal care performance. *Korean J Hosp Palliat Care*, 16, 33-41.

[18] K. H. Jo, A. R. Park & J. J. Lee. (2015). The effect of suffering experience, empathy ability, caring behaviors on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Korean J Hosp Palliat Care*, 18, 276-284.

[19] Glasser. W. (2005). *Defining mental health as a public health issue: A new leadership role for the helping and teaching professions chatsworth*, CA: William Glasser, Inc.

[20] M. S. Go. (201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of internal-external control for adolescents based on Glasser's choice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21] M. S. Go.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for Adolescents Based on Glasser's Choice Theory, *Korea academy of welfare counseling*, 7(1), 223-249. <http://www.riss.kr/link?id=A105484133>

[22] Y. O. LEE. (2004). *Nurse's stress from bereavement support*, master degree, Kyung Hee University, Seoul.

[23] E. H. Park & N. Y. Kim. (2018).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 and Death Anxiety on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2), 183-193.

<http://dx.doi.org.eproxy.pusan.ac.kr/10.7475/kjan.2018.30.2.183> .

[24] Schwartz J. E., Jandorf L., Krupp L. (1993). The measurement of fatigue: a new instrument. *J Psychosom Res*, 37(7), 753-762.

[25] R. J. Lee & H. S. Park. (2017). Death anxiety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ing at long term care hospitals, *Korea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Care*, 20(1), 37-45. DOI: 10.14475/kjhpc.2017.20.1.37.

[26] J. H. Yun & J. Y. Hwa. (2013). Nurses' awareness of death and meaning of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4), 381-388.

임 희 영(Hee-Young Im)

[정회원]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간호과정(간호학 석사)
- 2018년 8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박사
- 2016년~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호스피스,완화의

료

· E-Mail: mydla369@nate.com.

윤 미 진(Mi-Jin Yun)

[정회원]



- 2010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5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생명윤리, 리더십, 간호교육, 지역사회
- E-Mail : angelymj@hanmail.net

권 영 채(Young-Chae Kwon)

[종신회원]



- 2012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 박사
- 2015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2년 10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지역사회, 호스피

스

· E-Mail : nahante55@hanmail.net